

탈식민주의 문화전략과 패러디의 상관성 연구*

고 현 철**

차 례

- | | |
|------------------------------|-------------------------------|
| I. 서론 | III. 탈식민주의 문화전략과 패러디의 상관성 |
| II. 방법론적 전제 | 1. '탈식민화'와 '상동형식'·'변용형식'의 패러디 |
| 1. 탈식민주의·탈구조주의·포스트모더니즘의 공통성 | 2. '전유'와 '변용형식'의 패러디 |
| 2. 탈식민주의 문화전략과 패러디의 형식·이데올로기 | 3. '되받아쓰기'와 '반대형식'의 패러디 |
| | 4. '폐기'와 패러디 없는 반동일화 주체의 답론 |
| | IV. 결론 |

I. 서론

탈식민주의 이론은 정치적 식민지를 겪었고 이후에도 새로운 문화적·정신적 식민주의를 겪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다.¹⁾ 서구 중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41-A00308)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고현철, 『한국문학의 탈식민주의 비평·연구사적 검토』, 『한국문학논총』 제30집,

심의 근대적 경험을 통하여 문화적·정신적 식민주의를 겪으면서 서구 중심의 근대를 비판하고 새로운 근대 또는 탈근대를 모색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탈식민주의 문학·문화 이론은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현대문학을 살피고 현대문학사를 기술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론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탈식민주의 이론은 그래서 탈식민주의 문학·문화이론에 대한 소개 및 번역을 넘어 이론적 탐구가 상당히 진척되었고 구체적인 방법론의 적용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실정이다. 그러나, 이론과 방법론을 연관시켜 구체화하는 작업은 아직까지 그리 활발하지는 않은 실정이기도 하다.²⁾ 본 연구는 이런 현재적 상황에서 진일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탈식민주의 문학·문화이론과 방법론을 연관지어 보다 세부적으로 탐색을 하고자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작업은 이론과 방법론을 연관지어 탈식민주의 문화전략과 패러디의 상관성을 탐구하고 이를 실제 텍스트의 분석 및 해석에 활용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보증하고자 한다. 탈식민주의 문화전략과 패러디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산발적이거나 부분적으로 이와 연관이 있는 연구는 있었지만 이 주제에 집중하여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없으므로 본 연구는 상당한 정도 창의성을 확보한 연구가 될 것이다. 다만, 이 주제와 부분적이거나 산발적으로 연관이 있는 선행연구들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탈식민주의 문화전략과 패러디의 상관성과 연관이 있는 선행 연구를 일정 부분 활용하면서 이를 심화시켜 논의하고 다룸으로써 그 맥락을 잡고자 한다.

연구의 차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탈식민주의 문화전략과 패러디의 상관성보다 상위의 논의인 ‘탈식민주의·탈구조주의·포스트모더니즘의

한국문화회, 2002.6, 411-420쪽에서 검토한 ‘탈식민주의 이론비평 및 연구사’ 참고.

2) 위의 논문. 여기서 한국에서 한국문학을 중심으로 하여 그동안 이루어진, 탈식민주의 이론비평 및 연구사와 실제비평 및 연구사를 검토하고 탈식민주의 비평 및 연구의 문제틀을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참고문헌을 통하여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정리한 바 있다. 본문에서 언급한 판단은 필자의 이런 작업을 통하여 내린 것이다. 이는 필자의 논문 이후에 출간된 문화과비평연구회, 『탈식민의 텍스트, 저항과 해방의 담론』, 이회, 2003에 수록되어 있는 『탈식민주의문학 연구 목록』을 참고해도 판단에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통성'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패러디는 일반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적인 이론 및 수사학적 전략으로 간주되어 탐구되어 왔는데,³⁾ 탈식민주의도 패러디를 상당히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⁴⁾ 탈식민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공통성이 내재되어 있을 수가 있고 이 두 항 사이에 탈구조주의를 놓고 그 공통성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탈식민주의의 문화전략과 패러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예비작업으로 탈식민주의의 문화전략을 정리하고 패러디의 형식 및 이데올로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정리된 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탈식민주의 문화전략과 패러디의 상관성'을 상관될 수 있는 조합에 따라 몇 항목으로 나누어 이론 및 방법론을 먼저 검토하고 이를 실제 텍스트의 분석 및 해석에 활용하여 이론 및 방법론과 실제의 양면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 부분은 달리 생각하면 탈식민주의의 문화전략에 대한 확대나 보강이 이루어진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탈식민주의의 문화전략과 패러디의 상관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소제목을 잡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제2·3장의 본문에서 탐구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그 연구내용의 기여 및 활용방안과 전망 및 새로운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방법론적 전제

1. 탈식민주의 · 탈구조주의 · 포스트모더니즘의 공통성

탈식민주의와 탈구조주의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은 공통적인 요소를 서로 내재하고 있다. 빌 애쉬크로프트 · 개레스 그리피스 · 헬렌 티핀은 탈식민주의

3) Linda Hutcheon(장성희 역),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과 전략』, 현대미학사, 1998 이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서에 해당한다.

4) 본문에서, 이와 관련된 그동안의 산발적이고 부분적인 논의를 살펴보아 이를 본 연구의 전체 맥락 속에 위치 지을 것이다. 나중에 본문에서 자세히 밝혀지겠지만, 탈식민주의에 활용된 패러디는 탈식민주의의 문화전략과 상관성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와 탈구조주의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가 “문학적·문화적 실천의 넓은 범주를 상호 중복적으로 포괄하는 불편한 명칭”이며⁵⁾ 그 이론들은 “점진적으로 상호 연관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⁶⁾ 이러한 지적은 사실 총론적인 것이며 그런 만큼 보다 구체적인 연관성 속에 그 공통성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탈식민주의와 탈구조주의는, 중심과 보편에 대한 저항에 따라 탈중심화·복수(複數)성·주변성·차이성을 부각시키며 텍스트성을 강조함에 따라 담론적 관계와 이데올로기적 구성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점 등이 그 공통성이 된다.⁷⁾ 탈식민주의의 역사적 맥락과 이론적 실천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을 포괄하여 탈식민주의의 흐름을 정리하고 있는 바트 무어-길버트는, 탈식민주의 이론이 탈구조주의와 해체주의에 힘입어 서양/비서양, 중심/주변, 지배/피지배의 이분법적 틀을 해체하면서 이론적으로 보다 세련되어갔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만큼 탈식민주의가 원래 지니고 있었던 저항성과 전복성이 되색되어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⁸⁾

하지만, 이러한 점은 일정 부분은 인정해야 하지만 다른 측면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바트 무어-길버트가 탈구조주의를 활용한 탈식민주의 이론가로 손꼽고 있는 호미 바바는, 탈식민주의 이론이 탈구조주의를 활용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타자’인 비서구의 위치에서 수행한 것이며 이는 탈구조주의에 의존하면서도 타자의 위치를 가정함으로써 서구의 인식론을 해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⁹⁾ 탈식민주의는 가해자측에서 보면 반성이며 피해자측에서 보면 저항인데,¹⁰⁾ 탈식민주의가 탈구조주의를 활용하는 것은 비서구가 서구의 반

5) Bill Ashcroft · Gareth Griffiths · Helen Tiffin(이석호 역),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1996, 263쪽.

6) 위의 책, 267쪽.

7) Peter Childs & Patrick Williams, 『An Introduction to Post-Colonial Theory』, Prentice Hall, 1997, pp.202-205. 여기서는 김문환, 「탈식민주의와 연극 - 하나의 개관」, 『탈식민주의와 연극』, 연극과인간, 2003, 16-17쪽을 재인용하고 참고함.

8) Bart Moore-Gilbert(이경원 역),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한길사, 2001. 이경원, 「저항인가, 유희인가? : 탈식민주의의 반성과 전망」, 『문학과 사회』 제 42호, 문학과지성사, 1998. 여름, 753-756쪽.

9) Homi K. Bhabha(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 11쪽.

성의 논리를 활용하여 서구에 대한 저항의 논리를 세우는 전략이 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탈식민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은, 전자는 비서구의 위치에서 후자는 서구의 위치에서이긴 하지만, 둘 다 서구의 근대성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어 “제휴와 연대의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¹⁾ 허천은, 비서구의 탈식민주의가 서구의 식민주의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에 저항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양가적 저항을 보이는 반면 서구 내부의 비판인 포스트모더니즘은 지배적 문화에 대해 비판적이면서 동시에 공모하는 양가성을 보인다고 설명한다.¹²⁾ 이는 허천이 탈식민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이 두 항목이 정치성의 면에서는 차이를 지니고 있지만 전략의 면에서는 겹치는 점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된다. 탈식민주의는 정치성의 면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차이가 있지만, 둘 다 패러디와 같은 수사학적 전략을 잘 취하고 있다는 점이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공통성이 되는 것이다.¹³⁾ 탈식민주의의 전략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적인 수사학적 전략인 패러디를 받아들여 이를 기존의 서구 담론이 지닌 헤게모니를 해체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¹⁴⁾ 탈식민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이 권위의 부정이나 억압된 것의 귀환 등을 위해 정전의 해체와 패러디 등을 전략적으로 차용하여, 포스트모더니즘과는 달리 서구 식민주의의 문화적 헤게모니와 중심담론에 도전하고 이를 탈중심화시켜 비서구의 반(反)담론을 적극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 된다.¹⁵⁾

10) 윤건차, 『근대 기획과 탈근대론, 그리고 탈식민주의』, 『문화과학』 제31호, 문화과학사, 2002 가을, 43쪽.

11) 이경원, 『탈식민주의의 계보와 정체성』,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문학과지성사, 2003, 50쪽.

12) 박상기, 『탈식민주의의 양가성과 혼종성』, 위의 책, 233쪽.

13) 김준환, 『탈식민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위의 책, 103-106쪽.

14) 위의 글, 위의 책, 96쪽.

15) Helen Tiffin, 『Post-colonial Literatures and Counter-discourse』, Ashcroft, Griffith and Tiffin ed., 『The Post-colonial Studies Reader』, Routledge, 1995, p.125. 김승희, 『김수영의 시와 탈식민주의적 반(反)언술』, 김승희 편, 『김수영 다시 읽기』, 프레스21, 2000, 359쪽 재인용 및 참고함.

2. 탈식민주의 문화전략과 패러디의 형식 · 이데올로기

탈식민주의는 문화의 탈식민화를 중요한 목표로 삼는데, 이를 위한 대표적인 문화전략에 대해서는, 빌 애쉬크로프트 · 개레스 그리피스 · 헬렌 티핀의 공저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에서 상세히 잘 다루고 있다. 여기서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⁶⁾

첫째는 ‘탈식민화’(Decolonization)인데, 이는 식민지 이전 자국의 문화와 언어를 다시 회복하려는 방법과 그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문화적 합병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둘째는 ‘폐기’(Abrogation)인데, 이는 경전적인 지배문화와 담론을 거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셋째는 ‘전유’(Appropriation)인데, 이는 지배문화와 담론이 사용한 언어를 바꾸어서 재구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넷째는 ‘되받아쓰기’(Write Back)인데, 이는 지배담론에 의해 성전화된 텍스트를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쓰면서 지배담론의 음모와 허구성을 폭로하고 주변부의 경험과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조명하는 반담론을 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패러디의 형식과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론적으로 살펴본 바 있는데,¹⁷⁾ 여기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패러디에서, 패러디스트는 선행 텍스트인 패러디된 텍스트를 하나의 담론으로 인식하고 이를 자신이 처한 당대의 이데올로기적 주제에 맞추어 패러디한 텍스트에 수용한다. 그리하여 패러디스트는 패러디한 텍스트를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 담론으로 부각시킨다. 이때의 이데올로기는 담론 내부의 내용과 효과의 집합 그리고 패러디한 텍스트를 생산한 패러디스트의 전략을 의미한다.¹⁸⁾ 패러디는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 비평인 것이다.¹⁹⁾ 그러면 패러디한

16) Bill Ashcroft · Gareth Griffiths · Helen Tiffin(이석호 역),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1996. 이 외에 김성곤, 『탈식민주의 시대의 문학』, 『외국문학』 제31호, 열음사, 1992. 여름, 24-29쪽 참고.

17) 고현철, 『현대시의 패러디와 장르 이론』, 태학사, 1997, 25-39쪽.

18) 이글튼은, 문학텍스트는 어떤 특정의 이데올로기의 생산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Terry Eagleton(윤희기 역), 『비평과 이데올로기』, 열린책들, 1987, 95쪽.

텍스트의 개별 담론들은 패러디된 텍스트의 담론과 제각기 대화적 관계에서 형성된다. 여기서 패러디스트는 독자와 저자의 이중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곧 패러디된 텍스트에 대한 비평을 통해서 패러디한 텍스트를 창조 및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폐쇄에 따르면, 한 담론은 다른 담론과의 관계를 통해 즉 다른 담론과의 대화를 통해 효과를 갖는다고 한다.²⁰⁾ 패러디의 경우는, 패러디한 텍스트의 담론은 패러디된 텍스트의 담론과 대화를 통해 효과를 갖는 것이다. 여기서 패러디스트는 이른바 담론의 주체인데 패러디한 텍스트의 담론의 전략과 효과를 부각시키게 된다. 따라서 패러디는 패러디한 텍스트의 담론과 패러디된 텍스트의 담론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여기서 패러디된 텍스트와 패러디한 텍스트 사이에는 담론관계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패러디 관계의 구체적인 모습을 띠는 패러디형식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²¹⁾ 패러디된 텍스트와 패러디한 텍스트 사이의 패러디형식과 담론관계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패러디한 텍스트가 패러디된 텍스트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을 그대로 수용하는 형식인데, 이때 패러디한 텍스트와 패러디된 텍스트의 담론관계는 상동관계에 있게 된다. 이 패러디형식은 상동형식이 된다.

둘째는 패러디한 텍스트가 패러디된 텍스트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을 이데올로기적 주제를 매개로 하여 변용시키는 형식인데, 이때 패러디한 텍스트와 패러디된 텍스트의 담론관계는 변용관계에 있게 된다. 이 패러디형식은 변용형식이 된다.

셋째는 패러디한 텍스트가 패러디된 텍스트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에 대해 반대되는 이데올로기적 지향을 내세우는 형식인데, 이때 패러디한 텍스트와 패러디된 텍스트의 담론관계는 반대관계에 있게 된다. 이 패러디형식은 반대형식이 된다.

Terry Eagleton(여홍상 역), 『이데올로기 개론』, 한신문화사, 1994, 264쪽.

19) Linda Hutcheon(김상구·윤여복 역), 『패러디 이론』, 문예출판사, 1992, 168쪽.

20) Diane Macdonell(임상훈 역), 『담론이란 무엇인가』, 한울, 1992, 13쪽.

21) 패러디는 예술 상호간의 담론의 한 형식 즉, 담론관계에서 형성되는 형식인 것이다. Linda Hutcheon(김상구·윤여복 역), 앞의 책, 9쪽. 권택영, 『패러디, 패스티쉬, 그리고 독창성』, 『현대시사상』 제13호, 고려원, 1992 겨울, 188쪽.

이상과 같은 패러디의 이 세 가지 형식 중에서 상동형식보다 변용형식과 반대형식이 더 큰 가치를 띠게 되는데, 이는 패러디가 지닌 비평적 거리의 의미와 상통한다.

한편, 알튀세르의 이론을 발전시킨 페쇠의 담론이론은 지배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항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담론 양식의 유형학을 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페쇠는 주체가 구성되는 세 가지 기제에 따라 담론양식을 다음과 같이 세 유형으로 구분한다.²²⁾

첫째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동의하는 순응적인 주체들의 양식인 동일화 담론이다. 이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수용하는 담론양식인 것이다.

둘째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반항적인 주체들의 양식인 반동일화 담론이다. 이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아예 거부하는 담론양식인 것이다.

셋째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틀에 편승하는 동시에 저항하는 주체들의 양식인 비동일화 담론이다. 이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한편으로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거부하는 역설적인 통합의 담론양식인 것이다.

그런데, 탈식민주의 문화전략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빌 애쉬크로프트·개레스 그리피스·헬렌 티핀의 공저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에서, 페쇠가 내세우는 이 세 가지의 주체 구성 및 담론 양식이 탈식민주의 문화전략과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여기서 “포스트 콜로니얼한 담론의 실천적 양식으로 주어지는 폐기와 이 폐기 과정을 통해서 고무된 민족주의적, 인종주의적 비평도 이러한 반동일화의 한 양식인지 아닌지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역결정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인지 아닌지는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라 하여 폐기가 반동일화 주체의 담론의 한 양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비동일화는 주체 형성 과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과 전치를 통해 그 과정을 구성한다”고 하여 비동일화 주체의 담론이 전유와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²³⁾

또한 이 책에서는, “그(바바: 인용자 주)가 <타자를 ‘전유’하는 개혁, 규칙, 규

22) Michel Pêcheux, trans: Harbans Nagpal, 『Language, Semantics and Ideology』, St. Martin's Press, 1982, pp.155-170. Diane Macdonell(임상훈 역), 앞의 책, 49-56쪽.

23) Bill Ashcroft · Gareth Griffiths · Helen Tiffin(이석호 역), 앞의 책, 275쪽.

을>을 통한 식민주의적 주체 전복의 한 전략으로뿐만 아니라 동시에 식민주의적 권위를 위협하는 효과를 지닌 담론을 모방하는 피식민지 민중의 전략으로 흥내내기와 패러디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하부적 주체는 끊임없이 말을 해왔으며 식민주의적 텍스트에 대한 증후군적 글읽기가 <피식민지 민중의 목소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라고 하여, 패러디가 탈식민주의 문화 전략 중 전유와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²⁴⁾

다음 제4항에서는, 이런 부분적인 논의를 참고하여 전체 틀의 구성을 염두에 두어 탈식민주의 문화전략과 패러디의 상관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탈식민주의 문화전략을 필자가 검토하여 정리한 패러디의 형식·이데올로기를 연관시키고 여기에 주체 구성과 그에 따른 담론양식을 중요한 참고의 틀로 삼고자 한다.

Ⅲ. 탈식민주의 문화전략과 패러디의 상관성

1. ‘탈식민화’와 ‘상동형식’·‘변용형식’의 패러디

앞에서도 정리했듯이, ‘탈식민화’는 식민지 이전 자국의 문화와 언어를 다시 회복하려는 방법과 그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문화적 합병을 제안하는 방법을 말한다. 탈식민화가 패러디와 연관되는 것은 문화적 합병보다는 피식민지 자국의 문화와 언어를 다시 회복하려는 방법이다. 여기서, 자국의 문화와 언어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바로 자국의 전통 문화 형식 자체에 대한 패러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트락은 “구전 전통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탈식민화 과정에서 전술적 전략”이며 “탈식민 여성 작가들이 전통적인 형식을 사용하”여 “이런 형식들이 탈식민 시대와 장소에서 새로운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⁵⁾

24) 위의 책, 286쪽.

25) Ketu H. Katrack, 『Decolonizing Culture: Toward a Theory for Postcolonial Women's Text』, 『Modern Fiction Studies』 35.1, 1989. 박경화,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 - 제3세계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문학과

여기서 탈식민화가 구전 전통을 비롯한 전통 문화 형식을 활용하는 방법 가운데 두드러진 것이 바로 패러디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문화 형식 자체의 틀을 패러디하는 장르 패러디가 부각하게 된다.²⁶⁾ 앞에서 정리한 패러디형식을 장르 패러디에 적용하면, 상동형식은 선행 텍스트(장르)인 패러디된 텍스트(장르)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을 패러디한 텍스트(패로디스트의 텍스트)가 그대로 수용하는 패러디형식이다. 이는 탈식민화 가운데에서도 피식민지 자국의 문화 형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회복하는 경우인데, 그 대표적인 예는 전통 구비 문화 형식의 틀인 민요를 패러디하고 있는 현대시인 1920년대 민요시의 경우이다. 1920년대 민요시는 패러디된 텍스트(장르)인 민요를 패러디한 텍스트(민요시)에서 상동형식으로 패러디한 것이면서,²⁷⁾ 근대의 식민지적 상황 속에서 주변화된 민족 전통 문화를 되찾아 그 문화의 주체화를 통하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문화를 타자화하려는 것에 해당한다.²⁸⁾ 하지만, 이는 서양 문화라는 타자에 대응하는 주체의 개념에만 초점을 맞추어 더 큰 억압이 된 일제와 그 문화라는 타자에 대한 비판을 통해 민족 주체와 그 문화 전통을 확립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²⁹⁾

탈식민화가 변용형식의 패러디와 연관되는 경우는, 탈식민화 가운데에서도 피식민지 자국의 문화 형식을 이데올로기적 주제에 따라 변용하여 회복하는 경우이다. 이를 장르 패러디에 적용하면, 패러디한 텍스트(패로디스트의 텍스트)가 선행 텍스트(장르)인 패러디된 텍스트(장르)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을 이데올로기적 주제를 매개로 하여 변용시키는 형식이 되는 것이다. 탈식민화가 변용형식의 장르 패러디와 연관되는 그 대표적인 예는 전통 구비 문화 형식의 틀인 판소리를 패러디하고 있는 김지하의 판소리시의 경우이다. 우선, 김지하의 판소리시는 패러디된 텍스트(장르)인 판소리를 패러디한 텍스트(판소리시)

지성사, 2003, 165쪽 재인용 및 참고함.

26) 고현철, 앞의 책, 특히 13쪽 및 25-26쪽. 여기서 장르의 형식적 관습에 대한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모방인 장르 패러디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27) 위의 책, 62-69쪽.

28) 고현철, 『탈식민주의와 문화적 민족주의 문학의 상관성 연구 -1920년대 민요시·시론을 중심으로』,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 10 No.1, 국제비교한국학회, 2002.6, 75쪽.

29) 위의 글, 위의 책, 76-77쪽.

에서 변용형식으로 패러디한 것에 해당한다. 패러디된 텍스트(장르)인 판소리는, 폐쇄의 담론 양식의 세 유형에 따르면 비동일화 담론에 해당한다. 판소리는 궁극적으로 주자학적 계급질서 이데올로기를 주자학 내부에서 정통주자학을 비판하고 새롭게 해석하여 체제내적 변화를 추구한 비동일화 담론이다.³⁰⁾ 이에 비해, 김지하의 판소리시는 반동일화 담론에 해당한다. <오적>을 비롯한 이들 텍스트는 국사독재정권 시대의 비리에 가득찬 특권지배계층과 민중을 수탈하는 반민주적 지배 이데올로기 및 법질서 그리고 일본 식민주의 및 반민주적 친일세력의 추악성에 대해 일관되게 정면에서 통렬한 풍자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소리가 표면적으로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에 편승하면서 이면적으로 피지배층에 대한 풍자를 수행한 것이라면, 김지하의 판소리시는 바로 표면에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과 특권지배계층에 대한 풍자를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김지하의 판소리시는 패러디된 텍스트(장르)인 판소리를 패러디한 텍스트(판소리시)에서 변용형식으로 패러디한 것이 된다.³¹⁾

전통구비장르인 판소리를 변용형식으로 패러디한 김지하의 판소리시는 문화적·정신적인 피식민지 자국의 전통문화 형식을 변용시켜 회복한 것이므로 탈식민화에 해당한다.³²⁾ 이러한 사항은 김지하의 판소리시 텍스트 내부를 분석해보면 더욱 극명해진다.

영광입니다 각하 근대화작업에 얼마나 고되십니까 각하
 오늘은 평민이라두, 허허허 이집이 바로 근대화의 상징이군, 잘됐어 잘됐어
 잘됐어!
 (...)
 휘황한 상들리에 휘황한 저 아련한 베르사이유궁의 저 아련한 추억!
 바닥에는 카펫 벽에는 타펫 그 위엔 거대한 베라스케쯔

30) 구본기, 『판소리계 소설의 정명성 연구 - 명실관념의 전환과 명분론의 변용양상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1, 89쪽.

31)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현철, 앞의 책, 125-128쪽 참고 바람.

32) Ngugi Wa Thiong'o(이석호 역), 『탈식민주의와 아프리카 문학』, 인간사랑, 1999, 183쪽에서 응구기는, “김지하 시인이 한국의 신식민주의적 현실을 그려내기 위해 구전의 형식과 이미지를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구비전통에서 효과적인 무기 중의 하나는 풍자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 김지하, <蜚語> 중 '沅觀' 부분³³⁾

위의 인용은 고관이 묘령의 사치스러운 여인과 동침하려고 거대한 호텔에 들어가는 대목인데, 추악한 일을 위해 고관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스스로 평민의 입장이 되려고 한다. 그리고 추악한 일의 장소로 제공되는 호텔이 “근대화의 상징”으로 나오는데, 고관의 의식 속에 서구의 추억이 겹친다. 서구에만 정도된 근대화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는 풍자의 대상 고관은 ‘고관(高官)’으로도 읽힌다. 위에 드러나 있는 “근대화작업” 곧 서구화작업에 힘써온 고관에 대한 풍자는 주체적이지 못한 근대화에 대한 풍자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는 반서구의식과 반일의식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당시 특권지배계층의 비리와 전횡은 제국주의 일본의 청산되지 않은 유산인 식민주의 전통의 연장선 위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³⁴⁾

2. '전유'와 '변용형식'의 패러디

앞에서도 정리했듯이 '전유'는 지배문화와 담론의 언어를 바꾸어서 재구성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탈식민주의 문학에 있어 “가장 의미심장한 요소”가 된다.³⁵⁾ 전유는 모방의 반복이라는 개념을 내재하고 있는 것인데, 그 효과는 위장이다. “식민지적 모방은 ‘거의 동일하지만 아주 똑같지는 않은 차이의 주체로서’ 개명된 인식 가능한 타자를 지향하는 열망”으로, “모방의 담론은 양가성을 둘러싸고 구성”되는 것이다.³⁶⁾ 그래서 전유는 서구 문명이 피식민자의 문화의 위치에서 다시 쓰여지면서 상호텍스트적으로 혼성화되는 ‘교섭’과 ‘혼성성’의 과정으로 나타나는데 그 속에 저항의 계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³⁷⁾ 이는, “서구의 테크놀로지는 차용”하면서 “서구의 이데올로기는 거부하는” 비판의 가능성을 내재하는 것이 된다.³⁸⁾

33) 김지하, 『오적 - 답시집』, 숲, 1993. 이 시집은 결정본 김지하 시전집의 제3권임.

34) 윤구병,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시적 진실』, 『김지하 - 그의 문학과 사상』, 세계, 1985, 23쪽.

35) Bill Ashcroft · Gareth Griffiths · Helen Tiffin(이석호 역), 앞의 책, 19쪽.

36) Homi K. Bhabha(나병철 역), 앞의 책, 177-182쪽.

37) 위의 책, 17쪽.

지배문화와 담론의 언어를 바꾸어서 재구성하는 방법인 전유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틀에 편승하는 동시에 저항하는 주체와 그 담론양식인 비동일화 주체와 그 담론양식에 그대로 상응한다. 전유와 비동일화 담론 둘 다 지배담론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그 구성되는 형식과 과정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전유에서 중요한 점은 언어의 문제이다. 전유는 중심 언어의 재구성을 핵심에 두기 때문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심 언어를 새로운 용례로 사용하는 방법을 확보하고 재조정”하는 것이 전유에서 중요한 사항이며, 이는 “모국어가 아닌 타자의 언어로 모국어의 정신을 전달하는 것”이 된다.³⁸⁾ 아이러니와 역설의 통합적 담론양식인 비동일화 담론은, 자신의 말을 하기 위해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재한 중심 언어를 이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중심 언어를 해체하고 자신의 언어를 재탈환하려는 전략을 가진 전유와 상통하는 것이다.⁴⁰⁾

또한, 전유는 페러디의 형식 가운데에서 변용형식에 상응하는 것이 된다. 다만 변용형식 가운데에서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 제한 사항은, 페러디에서 페러디된 텍스트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재한 담론이며 페러디한 텍스트가 피지배 주체의 담론일 경우이다. 변용형식의 페러디라 할지라도, 페러디된 텍스트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재한 담론이 아니든지 페러디한 텍스트가 피지배 주체의 담론이 아니든지 그 둘 다가 아닌 경우에는 전유의 전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탈식민화가 페러디와 연관될 경우에는 자국의 전통 문화 형식의 틀을 페러디하는 장르 페러디가 부각하게 된다면, 전유가 페러디와 연관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작품에 상응하는 텍스트를 선행 텍스트인 페러디된 텍스트로 삼는 경우의 페러디가 부각하게 된다.

당신은 - 날 - 금요일에 구해 주셨지요
 식인종들로부터 -
 그래서 주인님은 나의 이름을 프라이데이라고 붙이셨지요
 (...)
 그 날이 나의 이름이고 출생이고

38) 이경원, 『그들의 테크놀로지와 우리의 이데올로기 - 포스트모던 시대의 ‘파농주의’』, 『비평』 제3호, 비평이론학회, 2000 하반기, 186쪽.

39) Bill Ashcroft · Gareth Griffiths · Helen Tiffin(이석호 역), 앞의 책, 65-66쪽.

40) 김준환, 앞의 논문, 앞의 책, 108쪽 참고.

영광이었어요

이제 나는 프라이데이예요
맨발에는 가죽 신발이 덮이었고
순진무구한 눈동자에는 별레 같은 문자들이
기어들어 왔어요
내 이름은 프라이데이
그날이 나의 이름이고 출생이고 종언이고
저주였어요

그 날부터 나는 애도 중입니다

- 김승희, <사랑 8 - 프라이데이가 로빈슨 크루소를 만난 날> 부분⁴¹⁾

위에 인용한 시는 다니엘 디포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를 패러디하고 있는 텍스트이다. 이 경우 패러디된 텍스트는 소설 <로빈슨 크루소>이며 패러디한 텍스트는 시 『사랑 8 - 프라이데이가 로빈슨 크루소를 만난 날』이다. 따라서, 위에 인용한 텍스트는 현대시와 소설 <로빈슨 크루소> 그리고 <로빈슨 크루소>에 대한 비평이 결합되어 있는 형식이며 메타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된다.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는 여러 탈식민주의 작가들에 의해 주목받아 재해석되어 씌어져 온 텍스트에 해당한다.⁴²⁾

위에 인용한 시는, 제3세계 원주민이 어떻게 정체성을 잃어왔는가를 『로빈슨 크루소』에 등장하는 원주민이며 크루소의 하인인 프라이데이의 목소리를 빌어 들려주고 있는 텍스트이다. 그래서 이 텍스트의 제목이 ‘프라이데이가 로빈슨 크루소를 만난 날’로 되어 있다. 프라이데이라는 이름 자체가 크루소가 그를 구해준 날이 금요일이라서 붙여진 이름임을, 프라이데이의 입을 빌어 표명되고 있다. 식민종으로부터 구출된 날을 이름으로 쓰고 있는 프라이데이에게 있어, 그의 이름은 크루소의 시각에 따라 “영광”스럽게 부여받은 것이 된다. 그런데 이름은 존재의 정체성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서구인의 명명에 의하여 붙여지고

41) 김승희, 『빗자루를 타고 달리는 웃음』, 민음사, 2000.

42) 대표적으로 2003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John M. Coetzee가 1986년에 발표한 『Foe』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근래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번역되어 소개된 바 있다. John M. Coetzee(조규형 역), 『포』, 책세상, 2003.

있다는 것 자체가 근원에서부터 식민성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영광이었지만, 이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저주”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피식민 상태의 본질을 깨달아서 저주하는 것이 바로 탈식민주의 전략과 연관된다. 이때 영광을 저주로 되돌려 놓는 것은 탈식민주의적 반담론이 된다. 그런데,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전유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프레이데이는 크루소가 가르쳐준 언어를 이용하여 저주를 하기 때문이다.

인용한 시에 드러나 있는 가족신발을 신는다는 것과 문자를 배운다는 것은, 식민화의 가장 기저에 해당하는 서구 문물의 수용을 통하여 이루어진 물질적인 식민화와 서구 언어에 의한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진 정신적인 식민화를 의미한다. 이를 깨닫게 되면서, 이 텍스트의 화자인 프레이데이는 앞과는 달리 “벌레 같은 문자”라는 말을 쓰고 있으며 나아가 자신을 “애도”하고 있다. 여기서 프레이데이가 피식민 상태의 본질을 깨달아서 크루소가 가르쳐준 언어를 이용하여 행하는 애도도 역시 전유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탈식민주의적 반담론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이 텍스트에서 화자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 부분의 화자의 태도가 제국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그에 따른 담론 및 언어를 그대로 수용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것이라면, 뒷 부분의 화자의 태도는 제국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점을 깨달으면서 이를 전유의 방법을 통해 제국의 중심 언어를 이용하여 제국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속성을 폭로하는 탈식민주의적 반담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행해지는, 제국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전복적 사고가 내재되어야 가능한 일이 된다.

여러 탈식민주의 작가들에 의해 주목받아 재해석되어 씌어져 온 텍스트이면서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와 비슷한 상황을 내포하고 있는 텍스트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셰익스피어의 <태풍>이다. <태풍>에서 프로스페로와 칼리반은 <로빈슨 크루소>에서 로빈슨과 프레이데이에 그대로 상응하여 결국 프로스페로와 칼리반의 관계도 로빈슨과 프레이데이의 관계에 그대로 상응하는 것이다. 이 <태풍>이 재해석되어 씌어지게 온 중요한 글쓰기의 전략 및 방법이 다름

아닌 전유와 연관된 변용형식의 패러디이다. 이런 텍스트에서, 칼리반은 언어를 이중적으로 사용한다. 프로스페로로부터 중심 언어를 배운 칼리반은 일정한 시점에 가면 프로스페로와 대화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와 자신의 속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달리한다. 나아가 중심 언어를 이용하면서 “철저하게 다른 맥락으로 전유”하여 자신의 담론과 문화를 드러내고 지배담론과 문화를 전복하고자 하는 것이다.⁴³⁾

3. ‘되받아쓰기’와 ‘반대형식’의 패러디

앞에서도 정리했듯이 ‘되받아쓰기’는 지배담론에 의해 성전화된 텍스트를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쓰면서 지배담론의 음모와 허구성을 폭로하고 주변부의 경험과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조명하는 반담론을 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지배담론의 음모와 허구성을 폭로하고 반담론을 드러내는 되받아쓰기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반항적인 주체들이 지배담론을 아예 거부하는 반동일화 담론양식에 그대로 상응한다. 되받아쓰기와 반동일화 담론 둘 다 지배담론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그 구성되는 형식과 과정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되받아쓰기와 패러디 형식의 연관성은, 패러디된 텍스트가 작품일 경우와 장르일 경우가 서로 다르다. 우선 패러디된 텍스트가 작품일 경우, 패러디된 텍스트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재한 담론이며 패러디한 텍스트가 피지배 주체의 담론일 경우로 한정된다. 여기에 패러디한 텍스트는 패러디된 텍스트를 반대형식으로 패러디하여 되받아쓰기를 드러내는 경우로 제한된다. 패러디에서 반대형식의 패러디라 할지라도, 패러디된 텍스트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재한 담론이 아니든지 패러디한 텍스트가 피지배 주체의 담론이 아니든지 그 둘 다가 아닌 경우에는 되받아쓰기가 되지 않는다. 다음 패러디된 텍스트가 장르일 경우, 패러디한 텍스트가 피지배 주체의 담론이기만 한다면 패러디된 텍스트인 장르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재한 담론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화 형식의 틀인 장르는 그 자체를 되받아쓸 수 있는 텍스트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

43) 이석호, 『에미메 세자르의 세익스피어 다시 쓰기 - 『어떤 태풍』을 중심으로』, 『탈식민주의와 연극』, 연극과인간, 2003, 233쪽.

서, 페러디된 텍스트인 장르가 내재하고 있는 담론에 따라 페러디 형식을 달리 하여 되받아쓰기의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페러디된 텍스트가 장르인 장르 페러디인 경우는 부분적으로 되받아쓰기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선 작품인 페러디된 텍스트를 반대형식으로 페러디하여 페러디한 텍스트가 되받아쓰기를 드러내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권력의 꼭대기에 앉아 계신 우리 자본님
 가진자의 힘을 약탈하게 하옵시매
 지상에서 자본이 힘 있는 것같이
 개인의 삶에서도 막강해지이다
 나날에 필요한 먹이사슬을 주옵시매
 나보다 힘없는 자가 내 먹이사슬이 되고
 내가 나보다 힘있는 자의 먹이사슬이 된 것 같이
 보다 강한 나라의 축제를 복돋우사
 다만 정의와 평화에서 멀어지게 하소서
 지배와 권력과 행복의 근본이 영원히 자본의 식민통치에 있습니다(상향-)

- 고정희, <새 시대 주기도문> 전문⁴⁴⁾

위에 인용한 시는 제목에서부터 마태복음 제6장의 '주기도문'을 페러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텍스트에 해당한다.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확장할 때에 겉으로 종교를 앞세우고 속으로 군사력을 통해서 지리적 확장을 꾀하여 온 것은 제국주의 침략사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준 사항이다. 타문화를 야만시하는 제국주의는 원주민의 종교를 미신이나 우상숭배로 간주하여 의식의 보편화를 위해 개종을 하도록 하여 식민통치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김승희는, 이러한 사항을 다음과 같은 시구절을 통하여 간명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성체를 흔들며 신부가 가고 / 그 뒤에 칼을 든 군인이 따라가면서 / 제국주의가 시작되었다고 한다"(『사랑 5 - 결혼식의 사랑』,⁴⁵⁾ 이런 사항으로 미루어, 위에 인용한 시 텍스트에서 페러디된 텍스트인 '주기도문'은 서구 제국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연관되는 담론이며 이를 되받아쓰고 있는 페러디한 텍스트 <새

44)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창작과비평사, 1992.

45) 김승희, 앞의 시집.

시대 주기도문>은 이에 저항하는 피지배 주체의 담론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기도문'과 <새 시대 주기도문>은 반대형식의 패러디가 형성되는 것이다.

되받아쓰기와 연관된 반대형식의 패러디를 통하여 이 시는 “강한 나라” “자본의 식민통치”의 악한 속성을 마음껏 풍자하여 그 우상의 허물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다. 또한 이 시 끝에서는 제문 형식(“상향-”)을 패러디함으로써 “자본”의 죽음을 미리 조상함으로써 되받아쓰기의 의도가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 시 텍스트는 연작시의 한 편인데, 이 연작시편의 제목을 ‘밥과 자본주의’라고 이름한 것도 다름 아닌 탈식민주의적 입장에서 자본을 바탕으로 한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대항하고 그 허구성과 타락상을 하나하나 파헤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위의 시 텍스트가 되받아쓰기를 드러내기 위해 작품인 패러디된 텍스트를 반대형식으로 패러디한 경우라면, 다음에 인용하는 시 텍스트는 장르인 패러디된 텍스트를 다른 패러디 형식을 통하여 되받아쓰기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된다.

日本刀를 뽑아라, 약탈하자 착취하자!
바닥까지 긁어서 끝장내어 버리자!
제휴도 합작도 그 어느 것도
植民으로 치달는다 帝國이여 萬歲!
(…)

민주주의같이 생긴 파시즘똥, (…), 자유주의같이 생긴 전체주의똥, 평화주의같이 생긴 제국주의똥, 四海동포주의같이 생긴 식민주의똥

- 김지하, <똥바다> 부분⁴⁶⁾

위에 인용한 시 텍스트는 판소리 장르를 패러디된 텍스트로 삼고 있는 장르 패러디이다. 여기서, 패러디된 텍스트인 판소리와 패러디한 텍스트인 김지하의 판소리시 관계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반대형식이 아닌 변용형식의 패러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패러디한 텍스트인 김지하의 판소리시는 반동일화 담론에 해당한다. 이때 되받아쓰기는 변용형식의 패러디와 연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시 텍스트 <똥바다>는 부분적으로 되받아쓰기를 수행하고 있는

46) 김지하, 앞의 시집.

것이다. 위에 인용한 시의 앞 대목을 보면 우선 반일의식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 반일의식은 주체성 없는 근대화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있다. 여기에서 일본의 경제 원조가 사실은 “약탈”과 “착취”이며 지배담론인 “제휴”와 “합작”이 사실은 “식민”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것임을, 일본 “제국” “만세”를 부르고 있는 일본인 분삼촌대(糞三寸待)의 입을 통해 되받아쳐서 폭로하고 있다. 이는 바로 지배담론을 주체적인 시각으로 되받아쳐 다시 쓰면서 지배담론의 음모와 허구성을 폭로하는 탈식민주의 전략인 되받아쓰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위 인용의 뒷대목은 분삼촌대가 조선에 와서 그동안 참았던 똥을 싸 갈기는 대목인데, 여기서도 되받아쓰기의 탈식민주의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인용을 보면 앞 항목의 지배담론이 뒷 항목의 주체적인 언어로 되받아침을 받아 다시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적 화자에 의해 뒷 항목의 언어로 앞 항목의 지배담론의 본질과 허구성이 다시 쓰여지고 있다. 일제와 친일세력이 내세우는 “민주주의”, “자유주의”, “평화주의”, “四海동포주의”의 본질은 사실 “과시즘”, “전체주의”, “제국주의”, “식민주의”라고 폭로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똥”이라는 말을 붙여둠으로써 되받아쓰기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4. ‘폐기’와 패러디 없는 반동일화 주체의 담론

앞에서도 정리했듯이, ‘폐기’는 경전적인 지배문화와 담론을 거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폐기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반항적인 주체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아예 거부하는 담론인 반동일화 주체의 담론양식과 연관된다. 그리고 폐기는 아예 거부하는 방법이므로 선행 텍스트가 전제가 되는 패러디와는 상관이 없게 된다. 패러디 없는 폐기와 연관되는 반동일화 담론은, 자신이 거부하려는 대상인 지배담론 및 문화와 ‘역대칭’ 자세를 취함으로써 원래 의도와는 달리 자신이 거부하려는 대상의 사고체계 내에 갇히게 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⁴⁷⁾ 여기에서, 탈식민주의 문화전략이 패러디와 연관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47) Bill Ashcroft · Gareth Griffiths · Helen Tiffin(이석호 역), 앞의 책, 275쪽.

IV. 결론

탈식민주의 이론은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할 때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론이다. 이에 대한 이론적 탐구가 상당히 진척되었고 구체적인 방법론의 적용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그 이론과 방법론을 연관시켜 구체화하는 작업은 아직까지 그리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런 현재적 상황에서 탈식민주의 이론과 방법론을 연관지어 세부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여, 탈식민주의 문화전략과 패러디의 상관성을 탐구하고 이를 실제 텍스트의 분석 및 해석에 활용하여 그 타당성을 보증하고자 한 연구이다.

제2장에서는 보다 상위의 논의인 ‘탈식민주의·탈구조주의·포스트모더니즘의 공통성’을 살펴보았다. 탈식민주의·탈구조주의·포스트모더니즘은 셋 다 서구의 근대성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그리고 탈식민주의가 탈구조주의를 활용하는 것은 비서구가 서구의 반성의 논리를 활용하여 서구에 대한 저항의 논리를 세우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탈식민주의는 전략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적인 수사학인 패러디를 차용하여 서구 식민주의의 문화적 헤게모니와 중심담론에 도전하고 이를 탈중심화시켜 비서구의 반담론을 적극 부각시키려고 한 것임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탈식민주의 문화전략과 패러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예비작업으로 탈식민주의 문화전략과 패러디의 형식·이데올로기를 정리하였다. 탈식민주의 문화전략은 ‘탈식민화’·‘전유’·‘폐기’·‘되받아쓰기’로 나누어지며, 패러디 형식은 ‘상동형식’·‘변용형식’·‘반대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탈식민주의 문화전략과 패러디의 상관성을 이데올로기와 연관지어 살펴보기 위하여 ‘동일화’ 주체의 담론, ‘비동일화’ 주체의 담론, ‘반동일화’ 주체의 담론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탈식민주의 문화전략과 패러디의 상관성을 전체 틀의 구성을 염두에 두어 상관될 수 있는 조합에 따라 몇 항목으로 나누어 이론 및 방법론을 먼저 검토하고 이를 실제 텍스트의 분석 및 해석에 활용하여 이론 및 방법론과 실제의 양면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자국의 문화와 언어를 다시 회복하려는 탈식민화는 자국의 전통 문화 형

식 자체의 틀에 대한 장르 패러디와 연관된다. 전통구비장르인 판소리를 변용 형식으로 패러디한 김지하의 판소리시는 문화적·정신적 피식민지 자국의 전통문화 형식을 변용시켜 회복한 탈식민화에 해당한다. 2) 지배문화와 담론의 언어를 바꾸어서 재구성하는 전유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틀에 편승하는 동시에 저항하는 주체의 담론양식인 반동일화 담론에 그대로 상응한다. 그리고 전유는 패러디된 텍스트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재한 담론이며 패러디한 텍스트가 피지배 주체의 담론이라는 제한적인 조건 하에 변용형식에 상응하며, 구체적인 작품인 텍스트를 패러디된 텍스트로 삼는 경우의 패러디가 부각하게 된다.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를 패러디한 김승희의 시는 중심 언어를 이용하는 전유를 통하여 피식민 상태의 본질을 깨달아 저주하는 탈식민주의 전략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지배담론의 음모와 허구성을 폭로하고 반담론을 드러내는 되받아쓰기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반항적인 주체들이 지배담론을 아예 거부하는 반동일화 담론양식에 그대로 상응한다. 되받아쓰기와 패러디 형식의 연관성은, 패러디된 텍스트가 작품일 경우는 패러디된 텍스트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재한 담론이며 패러디한 텍스트가 피지배 주체의 담론일 경우로 한정된다. 그리고 패러디된 텍스트가 장르일 경우는 패러디한 텍스트가 피지배 주체의 담론이지만 한다면 패러디된 텍스트인 장르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재한 담론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주기도문'을 패러디한 고정희의 시는 되받아쓰기와 연관된 반대형식의 패러디를 통하여 자본의 식민통치의 악한 속성을 풍자하여 그 우상의 허물을 폭로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4) 지배문화와 담론을 아예 거부하는 폐기는 당연히 반동일화 주체의 담론양식과 연관된다. 폐기는 아예 거부하는 방법이므로 선행 텍스트가 전제가 되는 패러디와는 상관이 없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 수사학인 패러디는 그 형식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여 탈식민주의 문화전략 및 주체의 담론양식을 연관시킬 때 그 상관성이 몇 개의 조합을 이룰 정도로 아주 구체적임을 밝혔다. 탈식민주의 문화전략은 패러디와 연관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패러디를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 탈식민주의와 관련시킴으로써 패러디 이론을 확장시켜 사유해야 하는 필요성이 부각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탈식민주의와 패러디의 상관성을 넘어 이들 양쪽에 그 이론과 방법론의 면에서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이론적인 논의를 실제적인 분석과 결합시킨 것도 연구의 작은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어 : 탈식민주의, 패러디, 탈식민화, 폐기, 전유, 되받아쓰기, 동일화, 비동일화, 반동일화

참고문헌

- 고현철, 『현대시의 페러디와 장르 이론』, 태학사, 1997.
- 고현철, 『한국문학의 탈식민주의 비평·연구사적 검토』, 『한국문학논총』 제30집, 한국문학회, 2002.6, 3-12쪽.
- 고현철, 『탈식민주의와 문화적 민족주의 문학의 상관성 연구 -1920년대 민요시·시론을 중심으로』,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 10 No.1, 국제비교한국학회, 2002.6, 75-77쪽.
- 구분기, 『관소리계 소설의 정명성 연구 - 명실관념의 전환과 명분론의 변용양상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1, 89쪽.
- 권택영, 『페러디, 패스티쉬, 그리고 독창성』, 『현대시사상』 제13호, 고려원, 1992 겨울, 188쪽.
- 문학과비평연구회, 『탈식민의 텍스트, 저항과 해방의 담론』, 이회, 2003.
- 김문환, 『탈식민주의와 연극 - 하나의 개관』, 『탈식민주의와 연극』, 연극과인간, 2003, 16-17쪽.
- 김성곤, 『탈식민주의 시대의 문학』, 『외국문학』 제31호, 열음사, 1992 여름, 24-29쪽.
- 김승희, 『김수영의 시와 탈식민주의적 반(反)언술』, 김승희 편, 『김수영 다시 읽기』, 프레스 21, 2000, 359쪽.
- 김승희, 『빗자루를 타고 달리는 웃음』, 민음사, 2000.
- 김준환, 『탈식민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문학과지성사, 2003, 96쪽, 103-106쪽, 108쪽.
- 김지하, 『오적 - 답시집』, 솔, 1993.
- 박경화,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 - 제3세계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문학과지성사, 2003, 165쪽.
- 박상기, 『탈식민주의의 양가성과 혼종성』,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문학과지성사, 2003, 233쪽.
- 윤건차, 『근대 기획과 탈근대론, 그리고 탈식민주의』, 『문화과학』 제31호, 문화과학사, 2002.가을, 43쪽.

- 윤구병,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시적 진실』, 『김지하 - 그의 문학과 사상』, 세
계, 1985, 23쪽.
- 이경원, 『저항인가, 유희인가? : 탈식민주의의 반성과 전망』, 『문학과 사회』 42
호, 문학과지성사, 1998, 여름, 753-756쪽.
- 이경원, 『그들의 테크놀로지와 우리의 이데올로기 - 포스트모던 시대의 ‘파농
주의’』, 『비평』 3호, 비평이론학회, 2000. 하반기, 186쪽.
- 이경원, 『탈식민주의의 계보와 정체성』,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문학과지성
사, 2003, 50쪽.
- 이석호, 『에미메 세자르의 세익시피어 다시 쓰기 - ‘어떤 태풍’을 중심으로』,
『탈식민주의와 연극』, 연극과인간, 2003, 233쪽.
- Bart Moore-Gilbert(이경원 역),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한길사, 2001.
- Bill Ashcroft · Gareth Griffiths · Helen Tiffin(이석호 역),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1996.
- Diane Macdonell(임상훈 역), 『담론이란 무엇인가』, 한울, 1992.
- Homi K. Bhabha(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
- Linda Hutcheon(김상구 · 윤여복 역), 『패러디 이론』, 문예출판사, 1992.
- Linda Hutcheon(장성희 역),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과 전략』, 현대미술사,
1998.
- John M. Coetzee(조규형 역), 『포』, 책세상, 2003.
- Ngugi Wa Thiong'o(이석호 역), 『탈식민주의와 아프리카 문학』, 인간사랑,
1999.
- Terry Eagleton(윤희기 역), 『비평과 이데올로기』, 열린책들, 1987.
- Terry Eagleton(여홍상 역), 『이데올로기 개론』, 한신문화사, 1994.
- Michel Pêcheux, trans: Harbans Nagpal, 『Language, Samantics and Ideology』,
St. Martin's Press, 1982.

<Abstract>

A Study on the Interrerationship between Cultural Strategies of Postcolonialism and the Forms of Parody

Ko, Hyun-Chul

This thesis aims to investigate the interrerationship between cultural strategies of postcolonialism and the forms of parody by combining its theoretical criticism and practical criticis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First, this thesis investigates not only the common point between postcolonialism and poststructuralism but also that between postcolonialism and postmodernism.

Second, it investigates the types of interreration between cultural strategies of postcolonialism and the forms of parody. The types ar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1) Decolonization and homology as a form of parody; trasformation as a form of parody with counter-identification discourse

2) Appropriation and trasformation as a form of parody with disidentification discourse

3) Write Back and counter form as a form of parody with counter-identification discourse

4) Abrogation and no parody with counter-identification discourse

In conclusion, it is claimed that cultural strategies rerated with parody are more effective than cultural strategies not rerated with parody.

Key Words: postcolonialism, parody, decolonization, appropriation, write back, abrogation, identification, disidentification, counter-identification